

## 전국 중대형 서점인들, 한국서적경영인협의회 준비 모임

올해 안에 발족 … 거래표준화, 정가제 유지 등 추진



8월 24일 한국출판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 간담회

전국 중대형 서점 대표자들이 모여 올해 안에 가칭 한국서적경영인협의회(약칭 한서협)를 발족한다. 한서협 발족을 위한 준비모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군자 경기서적 대표는 “친목회 차원을 벗어난 경쟁력 있는 단체를 지향하며 독서인구 저변 확대와 당면한 유통문제를 바로잡고 데힘쓰겠다”고 밝혔다.

한서협은 지난 4월 30여명의 서점 대표자들이 충주에 모여 전국적인 조직구성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임태했다. 이후 황군자, 이상훈 경인문고 대표, 이해만 광장서적 대표, 신우진 안양문고 대표 등이 준비모임을 만들어 조직구성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정관(안)을 만든 준비모임은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월 17부터 대전·광주·부산·대구·서울을 순회하는 간담회를 개

최했다. 황위원장은 “전주·울산 등 지방 서점인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뒤 한서협 발족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전국 중대형 서점 가운데 자발적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구성될 한서협은 출판사·유통업체·관련 기관을 담당할 <대

외협력위원회>, 회원사 및 업계의 권익을 보호할 <권익보호위원회>, 회원사의 공동사업 추진과 기금운용을 맡을 <공동사업추진위원회>, 서점의 협동조합과 정보인프라를 구축할 <유통개선위원회> 등의 기구를 두고, 거래표준화 정착, 마진율 향상, 반환조건부 위탁거래 관행 확립, 도서정가제 유지, 출판유통 전문인력 양성, 공동광고 공동기획, 통합 사이버서점 설립 등을 추진한다.

한편, 한서협의 발족을 바라보는 서점인 가운데 ‘서련’과 갈등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이상훈 대표는 “한서협이 견고하게 운영되면 오히려 서련의 위상은 강화될 것이다. 서련이 하는 일에 좀더 힘을 실어주는 단체를 지향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 오완진 기자

## 델리 국제도서전 참가



지난해 델리 국제도서전에 참가한 한국 부스

제5회 델리 국제도서전이 8월 14일부터 9일간 인도 뉴델리 프라가티메단 국제전시장에서 개최됐다. 인도출판연맹과 인도무역진흥공사의 주초로 개최된 이번 도서전에 5개국 217출판사가 참가했으며, 총 27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외국출판사의 참가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인도 출판시장에 대한 잠재력에 외국 출판 관련인사의 참관은 예년에 비해 증가했다.

4회째 참가한 우리나라는 220여 책을 출품·전시해 인도 현지 출판사 및 유통업체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영문으로 번역·제작된 한국 문화 소개 및 여행 관련 도서, 직물 디자인 및 자동차 관련 도서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하루 10~15건의 판권 문의도 있었다.

부대 행사로 인도출판연맹, 케ル터출판서점조합, 델리대학교, 인도도서관협회 등에서 각종 세미나와 시낭송회, 전자출판 워크샵 및 토론회 등도 개최했다.

### 한국 근대춤 인물사 (I)

승수남 역음 / 352쪽 / 15,000원

한국미래춤학회가 ‘우리 춤의 선구자를 말한다’라는 학술기획 시리즈를 통해 발표·기술된 논문들을 바탕으로 한국 근대춤 선구자 10인(최승희·조택원 등)에 대해 학문적으로 조명·연구한 책이다.

### 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윌터 테리 지음 / 김주자·김경자 옮김 / 220쪽 / 12,000원

모든 춤유형들의 예술적 배경과 특징들을 저자 특유의 부드러운 면서 날카로운 시각으로 설명해주고 있어 춤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데 있어 필수적인 책이다.

### 한국연희사

이강렬 지음 / 321쪽 / 12,000원

한국연희를 사적으로 살펴 본 개론서로 우리의 연희를 좀더 알기 쉽게, 이해를 돋기 위해 쓰여졌으며, 1988년 보건신문사에서 출간된 책을 다시 개정·증보한 책이다.

### 문학이론의 실제

더글러스 틸락 지음 / 성무당 옮김 / 296쪽 / 14,000원

작가의 풍부한 비교와 상호참조를 통해 문학분석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들을 현대의 세 문학텍스트-『어둠의 속』, 『새장 속에』, 『세인트 모』에 다양하게 적용·분석해, 문학이론의 실제적 적용의 지평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 출판학회, 국제출판학술대회 참여



한국출판학회(회장 윤형두)는 9월 1일부터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9회 국제출판학술대회〉에 대표단 11인을 파견했다. '출판산업의 기술적 진보와 저작권'이란 주제로 국제도서 전 개막세미나 형식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7개국이 참가했으며, 김기태 한국출판학회 사무국장이 〈한국에 있어 출판산업의 기술적 진보와 저작권〉, 김재윤 한국출판연구소 연구부장이 〈한국출판산업의 정보화 현황과 과제〉, 박원경 한국저작권연구소 소장이 〈고도정보사회에서의 출판산업과 정보관련법의 역할〉을 발표했다. 한편, 2001년 행사는 한국에서 개최한다.

## '99 우수학술도서 선정'

문화관광부(장관 박지원)가 주최하고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가 주관하는 '99 우수학술도서 선정' 결과가 발표됐다. 8월 6일 최종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학술도서는 총 138개 출판사가 발행한 265종 288책. 분야는 ▲총류 《한자는 중국을 어떻게 지배했는가》(김근, 민은사) 등 16종 18책 ▲철학 《기술시대와 사회철학-사회철학 대계(4)》(백종현 외, 민음사) 등 22종 24책 ▲종교 《부여 고구려 건국신화 연구》(이복규, 집문당) 등 8종 9책 ▲사회과학 《정보화시대의 지구 경제와 국가》(마틴 키노이 외, 정현주 외, 일신사) 등 78종 79책 ▲순수과학 《개미제국의 발견: 소설보다 재미있는 개미사회 이야기》(최재천, 사이언스북스) 등 7종 7책 ▲기술과학 《영양 사료 용어 해설 사전》(맹원재 외, 유한문학사) 등 42종 47책 ▲예술 《이미지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김우창 외, 생각의나무) 등 22종 24책 ▲문학 《한국 현대 시인 연구》(박진환, 자유지성사) 등 37종 45책 ▲역사 《제주 4·3 연구》(역사문제연구소 외, 역사비평사) 등 33종 35책. 문광부는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도서에 대해 종당 지원금 490만원을 지급하며, 130만원에 해당하는 도서를 구입해 각 도서관에 배포한다.

## 9월의 읽을 만한 책 선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윤양중)는 8월 23일 '9월의 읽을 만한 책' 10종을 선정했다. 목록은 다음과 같다. ▲《발해를 다시 본다》(송기호, 주류성), 《디오게네스의 헛빛》(프랑수아즈 케리

## "이제 출판도 고도의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출판 경영론』펴낸 김병준 지경사 사장



지경사 김병준 사장이 경영학 교수인 동생과 함께 『출판 경영론』(지경사)을 펴냈다.

"이제 출판도 고도의 경영전략이 필요합니다. 경험론에 머물면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출판을 감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과학적 근거를 갖고 출판을 해도 성공 가능성에 겨우 접근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다.

김사장은 『출판 경영론』을 통해 "출판사도 기업의 하나라는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제 기업가의 시각으로 합리적 경영론을 도입할 때라고 역설한다.

『출판 경영론』은 오랜 동안 출판계에서

겪은 경험론과 경영학을 전공한 동생 김병도 교수(서울대 경영대학)의 일반 경영론을 접목한 이론서. 중앙대와 경희대 대학원에 출강하는 틈틈이 출판 경영인이 최소한 알아야 할 내용을 조목조목 정리했고 외부의 경영론을 수용하기 위해 동생에게 자문을 구했다.

소비자가 문화를 향유하는 문화시대인 만큼 출판인의 시각도 같은 방향을 지향한다. 김사장 형제의 이 책은 문화시대에 출판 경영인이 취할 자세를 도모하고 있다.

— 오완진 기자

## 출판물 유통 서비스의 품질보장 선언!

"미래도서유통은 출판문화 유통산업의 현대화를 위하여 21세기 일산 출판문화 벤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려 합니다."

### ● 보증금이 없습니다

-저렴한 물류 비용으로 경비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 100% 안전보장 시스템

-화재·수해로부터 귀사의 재산을 안전 보장해 드립니다.

### ● 일일수거 배본 엄수

-서울·지방을 차량으로 신속한 배본 100%

## 미래 도서 유통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구산동  
582-7  
전화 · 0344)975-6571(代)  
팩스 · 0344)975-4722

### ● 최상의 입지조건과 넓은 공간(1,000평)의 활용

-신촌에서 25분(차량), 76번 노선버스(신촌↔일산), 3호선 대화역

### ● 원고기획 편집 제작 유통까지 책임 서비스

-각종 출판물 제작/출판프로그램 지원합니다.

### ● 정회원을 위한 출판문화단지 조성사업

-21세기 출판물 종합유통센터 조립

젤, 홍은주, 예문), 《한국경제 아직도 멀었다》(정운찬, 나무와숲), 《디지털 경제를 배우자》(돈 텁스콧, 김종랑·유영만, 물푸레), 《돌아갈 때가 되면 돌아가는 것 이 '진보'다》(천구석, 실천문화사), 《제2의 창세기》(이인식, 김영사), 《인간은 왜 병에 걸리는가》(랜델프 네스·조지 윌리엄즈, 최재천, 사이언스북스), 《반 고흐, 영혼의 편지》(반 고흐, 신성립, 예담), 《행복한 바보들이 사는 마을, 켈름》(아이작 B. 심어, 황명결, 두레), 《앎과 삶의 공간》(김봉렬, 이상건축).

#### 프로펠러스트 2000 전시회 열어

한국프로펠(대표 정아람) 미술부 일  
리스트레이터 14명  
은 9월 8일부터 13  
일까지 조선일보 미



전시에 참여하는 일러스트레이터

술관에서 '프로펠러스트 2000 전시회'를 갖는다. 지난해 이어 두번째로 갖는 이번 전시회는 개성이 강하고 풍부한 상상력을 펼친 다양한 그림이 선보일 예정이다.

#### 양귀자씨, 전주 흥지서림 인수

소설가 양귀자씨가 전주시의 대표적 서점 흥지서림의 새 주인이 됐다.

63년 전주시 경원동에 문을 연 흥지서림은 4층짜리 건물로 전평 250평 규모의 대형서점. 양씨는 흥지서림을 다목적 문화공간을 갖춘 서점으로 육성할 계획을 밝혔다.

#### 한국 판타지 문학 심포지엄 개최

자음과모음출판사(대표 강병철)는 지난 8월 25일 이

## "미래 출판에 대한 고민은 세계 공통"

취재차 내한한 《책과 컴퓨터》 무로겐지 웹진 편집장



출판과 책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진단이 많다. 일본 다이니폰(日本)인쇄가 운영하는 계간지 《책과 컴퓨터》의 웹진 편집장 무로겐지(室謙二)

래' 등의 좌담을 연쇄적으로 주제한 까닭도 그 때문이다.

씨 역시 그런 궁금증을 가졌다. 샌프란시스코에 사무실을 두고 칠레·타이·미국·러시아 등 현지 필자가 쓴 세계 각국의 출판동향을 담아 매달 영문판 웹진 《책과 컴퓨터》(www.honco.net)를 발간하는 그는 최근 아시아 각국의 출판현황과 컴퓨터와의 관계를 취재하고 있다.

"독자들 양서보다 베스트셀러에 몰리는 등 세계 출판계는 같은 문제점에 봉착했습니다. 컴퓨터 기술과 서적을 어떻게 융합시키느냐 고민하는 것 역시 비슷합니다."

지난 7월말 방한해 청주 고인쇄박물관, 해인사 팔만대장경, 영월 책박물관 등을 취재하고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인터넷 서점의 등장에 따른 출판 유통의 미

무로씨는 이런 고민이 결코 한국 출판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번 취재기사는 《책과 컴퓨터》가을호에 한국출판 특집으로 실릴 예정이다.

— 김연수 기자

화여대 인문관에서 '한국 판타지 문학의 오늘 그리고 미래'란 주제로 〈한국 판타지 문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발제 및 토론자로 김성곤 서울대 영문과 교수, 정재서 이화여대 중문과 교수 등과 소설가 이상균 등이 참여했다.

년도 문학인 창작지원 및 한국문학 번역지원 수여식'을 치렀다.

한편 대산문화재단은 PC통신 하이텔에 문학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하이텔 재단 포럼(www.daesan.or.kr)〉을 개설했으며, 총 1천3백만원을 시상하는 하이텔 신인문학상도 후원 한다. ●

#### 창작 및 번역지원 수여식

대산문화재단(이사장 신창재)은 8월 19일 '99

**darum** Publication Design Planning



다름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출판물의 홍수 속에서 차별화된 무엇 없이는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뭔가 색다른 크리에이티브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름기획으로 오십시오.

편집 및 그래픽 디자이너 경력사원 모집  
모집인원 ++ 0명  
모집기간 ++ 7월 31일까지  
응시원서 ++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포토폴리오(1차 합격자에 한함)  
다름기획 121-220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95-1번지 5층  
TEL. 325-6260-1 Fax. 325-0944  
E-mail. darumman@uriel.net, darumman@hotmail.com